

새끼발가락의 비애

또다시 강원본부가 조직 내 약한 고리로 지목되어 인사 조치와 조직 개편의 대상이 되었다. 품의 문서에 따르면 이번 직제 조정의 첫 번째 방향은 '팀제 활용과 조직 슬림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강화'였다. 여러 직제 조정 방향이 열거됐지만 결국 이번 조정의 본질은 보직 축소와 인력 감축을 통해 경영 개선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다.

강원 기술국은 다른 지역 본부들과 마찬가지로 직무 규정에 따라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강원 기술국은 '선교콘텐츠국' 산하 기술 팀으로 격하되었다. 비록 '1년간의 한시적 운영'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었으나, 한번 슬림화된 조직이 원상 복귀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사측에 묻고 싶다. 과연 무엇을 위해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는가? 인력을 줄여 경영 수지를 맞추든, 기존 업무의 부담은 더 커질 뿐 아니라, 새로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직 평가 자료를 회람하며 사측이 강원본부 제작·기술현업 인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잉여 인력', '노동강도 심각하게 빈약' 등 공문서에 담겨 조차 민망한 표현들은 현업 직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었고 참담함을 안겨주었다. 이를 접한 강원본부 직원들의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의를 강조하는 CBS가 내부에서는 서로를 공격하고 무시하는 날 선 태도를 보이는 일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가. 튼튼한 엄지발가락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인가? 약한 새끼발가락이 상처를 입었지만, 치료비용이 부담된다며 방치하다 결국 절단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이제 사측은 마음을 움직이는 경영을 해야 한다.

경영 논리에 매몰되어 직원들의 마음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방송기술인협회는 1년 뒤 정상화까지의 과정을 좌시하지 않겠다.

2025. 01. 13

CBS 방송기술인협회